

임시개장 1년여만에 관광객 200만명 유치 지역경제 효과

# 담양 명물 메타프로방스 조성 정상화 시급

민관 협력 대표적 성공사례 소송 발목에 추가 공사 중단 공사업체·인근 상가 피해 속 관광산업 호기 놓칠까 우려 郡 “소송 상관없이 사업 추진”

담양 속 작은 유럽으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고 있는 ‘메타프로방스(Meta Provence)’가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임시개장 1년여만에 담양을 넘어 전남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급부상하면서 관광객 200만여명을 유치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담양군은 앞으로 유럽풍 호텔 등 다양한 관광시설을 확충할 계획이지만 일부 토지주의 인기처분 취소소송으로 개발 계획이 발목을 잡히면서, 지역민들 사이에선 ‘모처럼 찾아온 관광 호기를 놓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인생 샵’ 성지 입소문-전국에서 젊은이를 끌어들이는 메타프로방스는 담양읍 학동리 일대의 13만 5000여㎡에 부지에 자리 잡은 유럽풍의 테마단지다.

이국적인 낭만과 멋은 물론이고 호텔과 펜션, 식당가, 잡화점, 체험관, 패션 아울렛 등이 함께 조성돼 ‘관광·쇼핑·체험·휴양·음식’의 즐거움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오락(五樂)의 공간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메타프로방스 사업은 총 3단계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담양군이 1단계인 전통놀이마당 조성사업과 3단계인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담당하고, 2단계인 메타프로방스 마을 조성사업은 디자인프로방스와 2개 민간 기업이 맡아 추진하고 있다.

‘메타’라는 이름은 국가산림문화 자산 제1호, 전남 으뜸경관 10선 등 그 타이틀도 화려한 ‘메타세쿼이아길’에서, ‘프로방스’는 프랑스 남부 지역의 목가적인 휴양 도시 ‘프로방스’에서 따왔다.

메타프로방스가 품은 이색 매력에 방문객의 입소문과 SNS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전국적인 인기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에는 드라마 ‘가면’의 촬영지로 흥보되면서 방송과 신문, 잡지 등 각종 매체에 신종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임시 개장에도 지금까지 200만여 명이 전국 각지에서 이곳을 다녀갔다.

특히 인생샷을 통틀어 가장 잘 나온 사진을 뜻하는, 속칭 ‘인생 샵’ 성지로 급부상



담양 속 ‘작은 유럽’ 메타프로방스 전경. 임시 개장만으로 관광객 200만명을 유치하는 등 담양지역 경제활성화를 견인하고 있다.



‘인생 샵’ 성지로 떠오른 메타프로방스에서 방문객들이 유럽풍 조형물을 배경으로 사진 촬영 등을 하고 있다.

하면서 사진을 찍으러 오는 젊은층도 줄을 잇고 있다.

◇구름 인파 몰려드니-지역 전체 경제 활성화와 견인-메타프로방스의 활성화는 지역 사회에 선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기존에는 죽녹원을 거닐고자 방문한 관광객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죽녹원~관광제일~메타세쿼이아길~메타프로방스를 잇는 테마형 관광이 활성화되고 있다.

담양의 삼색숲길을 따라 관광 수익도 지역 곳곳으로 골고루 분배되고 있다.

메타프로방스가 들어서기 전만 해도 죽녹원을 중심으로 상권이 존재했다면, 지금은 몰려드는 관광객의 수요에 맞춰 메타프로방스를 중심으로 또 다른 상권이

정상세를 보이고 있다.

◇일부 토지 소유주 행적 소송 발목-관광지 조성사업 제동-이처럼 민관 협력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손꼽히고 있는 메타프로방스 조성 사업은 지난해 연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제동이 걸린 상태다.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두고 토지주 2명이 담양군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 취소 소송이 대법원 판결을 남겨 놓고 있기 때문이다.

소송 사태로 현재 추가 공사가 중단되면서 현장 관련 중소기업의 경제적 손실, 입점 지연에 따른 상인들의 경제적·정신적 피해, 공사중이었던 입야구간 내 절개지 산사태 등 자연재해 우려, 이용객의 안전

및 이용 불편 증가 등 각종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

사업시행자와 관련 공사업체, 입점 업체들은 이 같은 피해 속에서도 메타프로방스 유원지가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한 담양군민과 군의회, 사회단체, 메타상가업체 등 6000여명도 메타프로방스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염원하는 탄원서를 3차례에 걸쳐 대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사업 중단시 막대한 피해 우려-담양군 사업 정상화 나서-담양군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만에 하나 토지소유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에 대비해 최대한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추진하기로 했다.

사업중단에 따른 수백여 관련 업체의 줄도산과 지역경제 침체 등 각종 악재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전남의 작은 기초자치단체인 담양군은 지방자치시대에 들어 재정의 열악성을 극복하고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핵심 테마인 ‘메타프로방스’를 발굴·개발해 성공을 목전에 두고 있다”면서 “특히 메타프로방스 유원지 사업은 향후 담양의 미래를 책임질 사업으로, 이 사업을 믿고 현재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자신의 재산, 노무, 미래를 투자해 피해를 지속적으로 입고 있는 만큼 대법원 판결 여부를는 별개로 사업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양=정재근기자 jigg@kwangju.co.kr

생태 공감 담양군-제천시 교류 문 활짝

협력·상생 발전 자매결연

‘대숲맑은 생태도시’ 전남 담양군과 ‘자연치유도시’ 충북 제천시가 생태와 자연을 공통 본모로 교류의 문을 활짝 열었다.

담양군과 제천시는 “최근 담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양 지자체간 상호협력 확대와 상생발전을 위한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최형식 담양군수, 김기성 담양군 의회의장, 이근규 제천시장, 김정문 제천시 의회의장을 비롯한 양도시 시·군의원, 각급 기관·사회단체장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자매결연을 통해 평생교육, 생태, 관광, 농업 등 상호 공통 관심 분야에 대한 교류를 확대하는 첫발을 떼게 됐다.

청풍명월의 고장 충북 제천시는 충북 북동부에 있는 도농복합도시로 청풍호수, 이리지, 박달재, 용담폭포 등 빼어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방바이오산업 및 관광산업



최형식(왼쪽) 담양군수와 이근규 제천시장이 최근 담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자매결연 협약을 맺고 있다. <담양군 제공>

등 여러 3차 산업 분야에서 큰 성장세와 함진 발전을 보이고 있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양 지자체가 맺은 협약으로 담양군과 제천시는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통해 동반 성장으로 가는 첫걸음을 내디딤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폭제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담양=정재근기자 jigg@kwangju.co.kr



## ‘담빛길 문화예술활동’에 원도심 살아나네

주말 버스킹·마술 등 공연

관광객 늘어나며 활기 돌아

매주 주말 담양읍 담빛길 구간에서 진행되는 ‘담빛길 문화예술활동’ 사업<사진>이 지역 주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으면서 원도심 활성화 정책이 가속도가 붙고 있다.

담양군문화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담빛길 문화예술활동’은 지난 5월 28일부터 담양읍 중심부 중앙공원을 무대로 매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옛 죽물시장 내 담빛 1길 일원에서 매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진행되고 있다.

버스킹공연, 마술, 토크, 클래식연주 등 매주 변화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은 관람객들이 공연에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특히 최근 지역 예술인들이 지역의 정서와 색깔을 살려 선보인 음악 공연도 큰 인기다.

담양읍의 한 주민은 “빈 점포만 즐비하던 이곳에 문화예술 활동가들이 찾아와 즐거운 공연과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골목 곳곳에 활기가 넘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상반기 담빛길 예술활동 프로그램은 8월까지 진행되며, 담양문화재단에서는 7월께 하반기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을 통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프로그램 및 참여 관련은 문화생태도시팀(061-380-3468)으로 문의하면 된다. 담양=정재근기자 jigg@

# 방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 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 해남 [新] 프리미엄 101스퀘어 상가분양·임대

해남 101스퀘어

해남 [중심사거리] 누구나 탐내지만 모두가 가질수 없는 해남 중심!  
새롭게 부상하는 그 곳, 황금알을 낳는 해남군청 중심상권의 프리미엄을 드립니다.

해남군청 바로 앞!  
[구. 광주은행 해남점]

해남의 중심에서 성공을 독점하다!

- 광역경관성: 전남지역 사민주관안도, 진도, 강진, 해남을 아우르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해남의 랜드마크이다.
- 행정교육의 중심: 군청, 법원, 세무서 모든 행정청을 아우르며, 해남고, 해남중학교, 해남고, 해남중학교, 해남초의 배후 교육 중심지이다.
- 복합 테마상가: 푸드, 의료, 의료, 미용, 학원, 법조특화 등 다양한 복합 테마상가, 폭발적인 인구증가 및 유동
- 안정된 수익: 초 저금리 시대의 확실한 투자성! 안정된 임대수익으로 대체투자 상품! 두번 다시 없을 [101] 프리미엄 가치!

분양·임대 1577-1901

새해 1주 금상  
새해 1주 금상  
진보종합건설(주)